

제일모직, 전자재료 사업 “탄력”

1-6월 매출액 1조원 돌파 ... EMC·EMS 판매확대에 ABS 호조

제일모직의 2004년 상반기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.

제일모직은 2004년 1-6월 매출액이 1조1824억원으로 2003년 1-6월 대비 20.1% 늘어나면서 반기실적으로는 처음으로 1조원 선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.

1-6월 영업이익은 773억원으로 13.8% 늘었고 순이익은 539억원으로 15.4% 증가했다.

특히, 2004년 상반기에는 제일모직이 신수종사업으로 육성중인 전자재료 부문의 매출액이 77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.1% 급증했다.

반도체 등 정보기술(IT)업계의 경기회복에 따라 EMC(반도체회로보호재)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5% 늘어난 218억원을 기록했고 2차전지 전해액과 전자파차폐재(EMS)의 매출도 117% 증가했다.

제일모직은 구미공장에 제2 도광판 생산라인을 증설해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, 이에 따라 생산량은 한해 5000톤에서 1만톤으로 늘어나게 된다.

또 양극활물질과 PI 배향막 제품 등의 신사업도 추진해 2004년 안에 제품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

전체 매출액의 50.3%를 차지하는 케미칼 부문에서는 투명ABS 등 기능성 수지제품 매출이 51% 늘어난 1471억원에 달하는 등 케미칼 사업 매출액이 총 5942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37.0% 증가했다.

제일모직의 경영실적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04.1-6	2003.7-12	전기대비	2003.1-6	전년동기비
매출액	11,824	11,019	7.3	9,844	20.1
매출이익	3,971	4,143	▽4.2	3,545	12.0
영업이익	773	963	▽19.7	679	13.8
경상이익	753	360	109.2	628	19.9
순이익	539	293	84.0	467	15.4

패션부문은 내수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44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.0% 늘어나는데 그쳤고, 직물 부문은 불황으로 인한 수주물량 감소로 매출액이 25.9% 감소한 672억원으로 집계됐다.

제일모직은 “2004년 하반기에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를 강화하고 중국 등 해외사업 현지화와 신수종 사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04년 전체 매출액 2조2400억원, 영업이익 1800억원을 달성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4/07/30>